

# “지붕 주황색 아니라고 건축허가 안내줘”

###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전원주택 인허가 논란 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 건축 가이드라인”

“지붕색깔이 주황색이 아니라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A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담양군과 민간 건설사가 합작해 추진하는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의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받았다. 3월초 토지사용승인을 받고 담양군과 전남도가 공고한 도시개발계획안에 맞춰 건축설계를 진행했고 잔금 납부 뒤 건축인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담양군은 지붕색깔이 주황색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안된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담양군청을 방문해 민원상담을 진행한 A씨는 전라남도 도보에서 공고한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의 색채 및 재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도시개발계획 어디에도 지붕색에 대한 규제는 없고 단지 건축물 외벽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담당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지붕도 포함된 개념”이라며 “담양도시개발 방향이 그러니 이해해 달라”고 A씨에게 당부했다. 결국 A씨는 담양군과 협의해 당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광역조감도.

초 검토에서 지붕색깔을 조정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는 “담양군에서 만든 기준과 전라남도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고 집을 지으려는데 이 제와서 분양 전에 없던 지붕색을 가지고 건축승인을 내주지 않는 태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담양군 도시디자인

과 관계자는 21일 “이곳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 건축 색상과 관련해 일정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여기에 위배돼 조정을 했다”며 “지붕색을 짙은 브라운계열로 조정해 지난 8일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2주째 죽은 물고기 떠오르지만

## 국과수도 가우똥...폐사 원인 의견 분분

#### 나주 만봉저수지 폐사 지속

전남 나주시 봉황면에 자리한 만봉저수지의 물고기 폐사가 2주째 이어지고 있다. 폐사 원인을 놓고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과수도차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만봉저수지 물고기 폐사율은 2주일이 지난 21일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저수지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 수거한 폐사 물고기는 600kg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물고기 폐사 원인에 대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면서 물 방류나 저수지 바닥 준설 등 후속조치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폐사 원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나온 유일한 결과는 나주시의 의뢰로 폐사 원인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과수의 잠박한 통보가 전부다. 국과수는 최근 나주시에 “농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폐사는 아닌 듯하다”는 답변을 전화로 알려왔을 뿐이다. 함께 원인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도 빨라야 이번 주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봉우 기자

## 현대차 노조 “현대차, 유동성 위기 마당이니 광주형일자리서 손 떼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대차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정부와 사측이 공동 추진중인 광주형일자리 철회를 촉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노조는 경차 생산에 대한 시장 확보의 한계와 저임금 양산으로 노동의 질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해 광주형일자리 를 반대했다”며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까지 흘러나오는 마당에 실효성 없는 투자계획을 거두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광주형일자리란 현대차의 기존 완성차 공장 임금이 절반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와 문화, 복지 등의 지원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난해 1월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약으로 사업에 공식 착수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현대차, 부품사 등 37개사가 합작 설립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7000억 원을 투입해 광주 빛그린 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1000cc

미만의 경형 SUV 연 10만대를 양산하는 공장 설립을 목표로 지난해 9월 법인 설립에 이어 12월 공장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2021년 공장 완공시 정규직 포함 직간접 고용까지 포함해 1만~2만명이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와 지역 노동계는 논란 끝에 법인설립에 앞서 노사상생협정서를 체결하고 사업에 합의했지만 이후 노동계가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이 인공유, 임원급어제한 및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지난 2월 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현재 공장 건설 공정률은 10% 미만이며, 현대차의 지분은 19% 정도다.

현대차 노조는 “코로나19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경고하는 마당에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현대차는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광주형일자리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 인쇄전문기업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

### ● 단신 ●

#### 코로나 시국 음주운전사고 경감·강등·경장·해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가적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관 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감과 광주경찰청 모 기동대 소속 B경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경감은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 처분을, B경장에게는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A경감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2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경감은 심야시간에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차에서 잠이 들었고 오전 4시쯤 잠에서 깨어나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A경감은 표지판을 들이받은 후 잠들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경감은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 사고 후 12일만인 지난 8일 11시 2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한 교차로에서 B경장 역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경장은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직급 속여 혼인취소 9급 세무공무원, 직장서 중징계

직급을 속여 결혼했다가 혼인취소를 당한 9급 세무공무원이 다니던 직장에서도 중징계 처분 위기에 내몰렸다.

20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광주 모 세무서에서 9급으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한 여성과 교제를 하던 중 ‘세무서 7급 공무원이다’고 말한 뒤 결혼했으나, 이 여성은 ‘A씨가 거짓말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국세청과 언론 등에 제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여성은 A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광주국세청은 A씨가 직급을 속이는 등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됐으며 징계위에 회부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본청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아우디 女운전자, 신호대기 경찰차 들이받아

광주지방경찰청은 경찰 기동대 차량을 들이받은 아우디 차량 운전자 A씨(60·여)를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5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기동대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승합차에는 기동대원 7명과 소대장 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모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기동대는 북부경찰서로 교통 근무 지원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전방 미주시 또는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하남산단 공장서 염산 2톤 유출...인명피해 없어

21일 오전 9시22분쯤 광주 광산구 오선동 하남산단 내 한 세계 제조공장서 염산이 유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10명과 소방관 20명 등 43명이 모래주머니와 흡착포 등을 이용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

인명피해와 염산의 하수구 유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염산 탱크가 주저앉으면서 염산 2톤 가량이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